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월 14일(주일) 제1180호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합니다”



사진은 온누리 선교 헌신자들.

1월 14일 '2018 선교헌금 2차 작성 행사' 실시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누구든지 참여가능

오늘(14일) '2018 선교헌금 2차 작성 행사'가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에서 나눠주는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교회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된다.

선교헌금 작성서를 제출하는 성도들은 자동이체(CMS)나 선교헌금 봉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이체(CMS)를 선택한 성도는 '신규', 기존 후원자 중에서 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는 '변경'란에 체크하면 된다. 소속 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좌 정보 및 매월 작성금액을 꼼꼼하게 기입한 다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도 동의해야 한다. 자동이체 해지를 원하는 성도는 2000 선교 본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인출일은 매월 25일이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봉투를 찾을 캠퍼스를 기입하면 된다. 각 캠퍼스 헌금봉투 꽃이에 비치된 자신의 헌금봉투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헌금하면 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로도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재능기부 분야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의사소통 지원, 예배 및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박아곱 선교사는 "재능기부 선교사님들이 숙소를 지원해주신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0선교본부는 2018년 재능기부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도들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고 풍성한 재능기부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우간

다 난민을 위한 학교 건축, 르완다 'Love House' 건축, 이주민 양육 및 선교 훈련 도입, 선교사 리더십 훈련, 러브 무슬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헌금 02-3215-3616

재능기부 070-4949-788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8 선교헌금 작성〉		
1차	CMS 신규작성인원 1,375명	금액 502,313,292원
1차	봉투 작성인원 1,823명	금액 952,643,756원
1차	작성금액 누계 11,784,293,048원	
1차	작성인원 누계 28,091명	
〈2018 선교재능기부 1차 작성〉		
2017년 신청 594명 2018년 1월 10일 현재 45명 / 누적 639여명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끝까지 완주하자!

1월 20일까지 새벽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이제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1월

20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진행된다. CGNTV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주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주제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 이기원 목사, 김영길 장로, 정민영 선교사 등이 설교하고 있다. 마지막 주 주제는 '그리스도처럼'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국내 10개 캠퍼스와 29개 해외비전교회, 선교지와 기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CGNTV는 새벽기도 실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조직도 홈페이지 게재

'2018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는 신문으로 발행하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게재된다. 1월 14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8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내려 받을 수 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 산다는 말이 있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의 삶도 그렇다 그들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대표곡과 어쩔 그렇게 똑같은지 모른다. 그들 부부에게는 ‘만남’, ‘사는 게 원지’, ‘바람’ 등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 부부를 가장 잘 웅변해주는 노래는 ‘사랑’이다. 그들을 사랑으로 엮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노래 제목 따라 사는 이 부부만의 사랑법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이무송, 노사연 집사.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6년차다. 여느 부부와 다를 거 없이 티격태격하다가도 금세 개소금을 부는다.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대표적인 연예인 잉꼬부부다. 물론 지금도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툰 때도 있지만 말이다. 큰 위기도 있었다. 만약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비극적인 결말의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른다.

‘만남’ 그리고 결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1992년 무척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그들은 신라호텔 수영장에서 처음 만났다. 장소도 장소였지만 둘은 처음부터 참으로 어색한 관계였다. 당시 노사연은 최고의 인기가수였고, 이무송은 신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최고의 가수 노사연이 이무송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노사연의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이무송 씨가 너무 신사답고 부드럽더라고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저 넓은 가슴에 안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당시 노사연 씨는 가요계 대선배이자 국민가수였거든요. 거기다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선

배님이 저를 부르실 때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갔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다. 당시 연예계 대표적인 노처녀였던 노사연에게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데이트는 주로 지방공연을 오가는 차 안에서 했다. 공연관계자들에게는 미국에서 온 사촌 동생이라고 속여 가며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또 한 번 있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좋은데 남편은 저를 좋아하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저만 애가 닳다 못해서 이별을 고한 적이 있어요. 그제야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러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그들은 1994년 3월 1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했다.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가족과 친지, 교인과 지인이 3천 명이 넘었다.

둘이 ‘사는 게 원지’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다. 결

혼생활은 연애와 완전히 달랐다.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생각의 차이, 옷차림, 식습관, 자녀 양육 방법 등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 까 뭐든지 싸움거리로만 보였다.

“아내는 저를 시트콤에서나 볼 수 있는 자유분방한 미국인인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완전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반바지도 못 입게 하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도 싸움으로 이어졌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파스타를 참 좋아해요. 연애할 때도 자주 먹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밖에서 파스타를 먹고 왔는데 아내가 집에 와서 김치 한 포기 먹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싸웠어요.”

반바지 입는 것과 파스타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싸웠는데 자녀 양육 문제는 오죽 했을까. 건강하게만 자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무척 많았다. 자녀가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는지를 가지고도 피터지게 싸웠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을 놓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투고 또 다투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혼하자는 말이 서슴없이 오갔다.

“제가 이혼하자면서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때 상처를 정말 많이 줬어요. 저는 그때 후회 없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다. 동료연예인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때만 해도 저와 아내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 갔다 오더니 엄청 신실해져서 왔더라고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 지나가고 새벽 오는 것처럼

“오직 나 위한 그 마음 이제야 느낄 수 있죠♪”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아내는 이모인 가수 현미를 통해서, 남

편은 이민 갔을 당시 공항에 마중 나온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었다. 그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부부 사이가 회복됐다. 그렇다고 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번 인터뷰 이틀 전에도 싸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싸우고 화해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싸우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마시고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사과해요.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사랑이 샘솟거든요.”

“저도 생전 사과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싸우고 나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남편이 사과하면 ‘나 놀리냐’며 화를 냈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함께 사역하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남편 이무송은 6년 전부터 Acts29합창단(연예인합창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 사역에 아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연습 때마다 챙겨주고, 연예인들과 교제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남편이 Acts29합창단을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그녀였다.

“젊고 예쁜 여자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같이 웃고 떠들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Acts29합창단을 그만하라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내의 사랑 덕분에 6년 동안이나 Acts29합창단을 섬길 수 있었다. 아내 노사연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Acts29합창단에는 ‘단사’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단장 사모님’이라는 뜻이다.

남편 이무송의 아내 사랑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내 노사연은 청력이 떨어져 보청기를 끼고 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한 날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청력이 안 좋아진 아내를 배려해서 남편이 늘 높은 톤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잉꼬부부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다.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고 싶어요.”

“저와 아내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20~26

“세상이 믿고, 알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였던 기도지만 부활 승천 이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세상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미래를 품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품은 기도요, 선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고통스러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 될 비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20절).

미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놀라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몰라서 믿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믿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에게 비난받는 모습, 어떻게든 교회를 부정적인 공동체로 몰아가려는 흐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세상의 공격, 불안정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피해 도망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불안정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

전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믿고, 알고, 영광을 보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18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21절).

둘째,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23절).

셋째,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24절).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것도 이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품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후에 마음속에 생긴 기쁨, 평안, 자유, 감동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서만 끝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모두 내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21~23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네 가지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신비입니다. 온전하고 놀랍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

둘째,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본성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하나 되어 계십니다.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리되었다고 해도 이단이고, 혼합되었다고 해도 이단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독립되어 존재하면서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것이 두 번째 신비한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

셋째, 예수님을 믿는, 그분께 속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하나됨입니다.

넷째, 장차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2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분열하고, 수많은 교단이 생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기 싫다고 합니다. 믿기 싫은 이유가 그렇게 다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교단이 통합되고 하나의 큰 교단이 생긴다면 믿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을까요? 예수님은 조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엄청난 생명력과 성장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었습니다. 교회가 황제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직적인 연합체를 갖추었을 때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의 조직으로 얹혀 있는 시대에 교회가 영적으로 강했습니까? 위대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교회제도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조직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가 확실히 통일되는 하나됨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데올로기로 하나됨 자체를 우상화해서 모든 종교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 하나됨

예수님의 하나됨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됨을 만든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신년
기획

2018년 우리가 해야 할 일 2. 선교

“당신이 온누리 선교사입니다”

선교에는 나이, 국경, 직업, 분야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방법도 다양각색 ... 국내외 선교, 재능기부, 중보기도

2018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명이다. 그 두 번째 사명은 선교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국경도, 나이도, 직업도, 분야도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교는 누구든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과 차별이 없다. 경중과 크고 작음도 없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주민도, 80세 어르신도, 5세 코흘리개 어린이도 모두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는 장벽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선교는 누구든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장 실천해야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사명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방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선교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적합한 나이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없다. 왜냐하면 선교는 누구나 언제든지 해야만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에 적합한 연령대를 청장년(40~50대) 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청장년이 가장 많다. 그렇다고 청장년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즘은 은퇴 이후 선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신앙 경험과 삶의 연륜을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들의 선교사 헌신도 늘고 있다.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는 부부도 있고,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영렬 장로(양지 온누리교회)는 70세에 은퇴하고 선교지로 떠났다. 아프리카, 네팔, 남미 등지에서 건축선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정 장로는 청년 못지않은 열정과 기력, 풍성한 지혜를 바탕으로 선교지에서 감조



선교사 자녀 스쿨에 참석한 MK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혼부부인 아길라, 프리실라 선교사(아프리카 C국)는 자녀 다엘이가 신생아일 때 선교훈련을 받고 2016년 아프리카 C국으로 파송됐다. 그들 부부는 현재 아프리카 C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젊음을 베타아 활발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선교사들도 많다. 청년 단기선교 프로그램인 FA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믿고 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다.

전도의 황금어장 ‘이주민 선교’

간혹 선교는 해외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아니다. 선교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히 찾아온 선교지 ‘이주민 선교’가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2016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국가이다. 이주민 선교는 선택

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왔다.

이주민 선교는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과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꽤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 이웃으로 다가온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선교를 우리 집 앞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해리 형제(인도)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꿈보다 더 크고 중요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도로 출국했다. 그의 꿈은 인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비단 해리 형제뿐만이 아니다. 안산M센터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수많은 이주민들이 고국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더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주민 사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식당에서 만나는 조선족 이모들과 지하철 옆 좌석에 앉은 이주민들에게 “한국살이 힘들

죠? 어려운 것은 없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안산, 김포, 화성, 평택 M센터를 소개하고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다. 서빙고, 수원, 부천, 남양주, 인천,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주민 예배를 섬기는 것도 탁월한 이주민 선교 방법이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어쩌면 복음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나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다. 크리스천들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과 교제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는 미혼모, 재소자, 독거 어르신, 탈북자 등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 교도소, 탈북센터, 미혼모센터 등지를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아보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를 살피고, 반찬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나누고, 골목길에서 파지 줌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음료라도 건네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선교방법이다. 밤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도 좋다.

직장도 선교의 장이다.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직장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선교열매가 맺히는데 부족함이 없다. 탁월한 실력, 손해 볼 줄 아는 아량이 크리스천의 덕목임을 보여줘야 한다. 거기가 따뜻한 마음은 필수다. 힘든 일을 겪거나 고민이 많은 동료가 있으면 진심으로 기도해주겠다며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손길을 거절할 사랑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달란트 선교사'

선교는 훈련을 받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곧 선교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재능기부'라고 하는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재능기부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주부, 학생, 직장인이려면 재능기부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주부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대접할 수 있고, 이주민공동체를 찾아가 요리교실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선교사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공부를 알려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회사와 동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 예술, 마케팅, 디자인, 체육 등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에는 후원사역부 재능기부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들이 활동하는 '티칭그룹',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힐링그룹', 출판 및 디자인 종사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그룹', 선교사들의 숙소와 차량 지원 및 예배 섬김 및 컨설팅을



2018 후원사역팀 Group



TEACHING GROUP

: 남호범 그룹장

MK 학습지도 및 교육 총괄
음악, 미술, 악기 및 태권도 지도
직업 교육 및 상담



HEALING GROUP

: 두한승 그룹장

일반의학 및 한의학
스킨케어 및 체형교정
안마지압 및 카이로프랙틱
스포츠 및 예술 분야
선교사 상담 및 멘토링
질병중 선교사 및 숙소 방문 위로



COMMUNICATING GROUP

: 최향미 그룹장

번역(SWIM, MCC) 및 저작, 성우 섬김
영상 및 디자인 프로그램(SWIM) 섬김
IT사역 총괄

SERVING GROUP

: 정세화 그룹장

선교사 숙소 및 차량 지원
목요선교집회 및 선교소를 섬김
이주민사역(M Mission) 지원
선교지 컨설팅 및 교정 사역(TIM, BW)
중보기도팀 운용

예배 및 기도모임

온누리에서 온 편지	두달에 한 번 씩 발행, 대륙별 선교 소식 문의: 070-4949-7886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본당
시안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시온홀 서를 서빙고 오전 9시, 양재 오전 9시 30분
북한중보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신관 403호
살롬 기도회(나라와 통일 평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서빙고 시온홀, 오전 8시 양재 JDS홀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서빙고 콘서트홀
선교사자녀 중보기도 모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선교관 302호

담당하는 '섬김그룹' 등이 있다.

보배 선교사는 재능기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가족사진을 찍었고, 박아곱 선교사의 자녀는 숙소를 후원해준 '재능기부 선교사'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한사랑 선교사는 오랜 만에 한국에 온 자녀와 함께 선교사 자녀를 위한 캠프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맛봤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캠프를 섬겨 준 '섬김 선교사'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각자의 달란트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중보기도는 필수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선교사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 선교사들의 핵심 역할이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소식을 알아야 한다. 선교지 소식은 공동체 선교사역자에게 듣거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목요선교예배에 참석하면 알 수 있다. 또 2000선교본부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기도편지를 구독하면 5대양 6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드리고 있는 시안열방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하는 것도 좋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선교지 소식을 받아보고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기도 어플리케이션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QR코드로 들어가면 더 많은 재능기부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우리 가족은 인도차이나에서 7년 2개월 동안 1기 사역을 마치고 지난 7월 18일부터 안식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2010년 아이들과 함께 인도차이나에 갔는데 우리 부부는 인도차이나에서 한국으로, 아이들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인도차이나에 살면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없어서 현지 아이들과 동물과 곤충이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은 2년 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갔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걱정되었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재능기부팀 성도님들이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 '빛을 나누는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우리 아이들은 '빛을 나누는 학교'에 꼭 빠졌습니다. 아침식사를 하자마자 학교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큰아이가 '빛을 나누는 학교'에서 만이가 되었고, 우리 둘째 에스더와 요한이, 주은이, 예은이, 희창이, 시유 등 총 12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귀한 추억을 만드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늘 그리워합니다. 타 문화권에서 살면서 많은 혼돈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착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내색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빨리 어른처럼 생각하고 성숙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 자녀들을 위

해서 가까이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접할 수 없는 한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한 아이들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학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각 나라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독일어를 더 배우고 싶어 했는데 한 달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어, 영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사 자녀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어린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쳐 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 나도 그랬는데", "어, 너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며 선교사 자녀들이 서로를 공감해주고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했습니다. 선교사 자녀가 아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을 나누는 학교'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2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재능기부 선교사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섬김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계속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사랑, 김소망 선교사(인도차이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018 예수제자학교 참가자 모집 (Jesus Disciples School)



사진은 지난해 양재 주간반의 중앙아시아 E국 아웃리치.

판소리 명창(중요무형문화재 5호) 정희석 성도(서초B공동체)는 4년 전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교회와 십자가를 참으로 싫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뿌리 깊은 유교집안에서 자랐고, 사찰에서 소리연습을 하면서 범명까지 받았을 정도로 기독교보다는 불교, 유교, 도교가 훨씬 친근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금식기도 하러 간 아내를 찾으러 교회에 간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술과 담배부터 끊었다. 가장장적인 가정에서 탈피해 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상한 아빠가 됐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련회에 참가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 정희석 성도

부부의 변화는 60년 넘게 불교신자였던 장모님까지 변화시켰다.

그런데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커져만 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너무 궁금했다. 그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준 훈련이 있다. 바로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s School)’다. 그는 예수제자학교에서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확실하게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 회석아 너는 내 가슴에 새긴 아들이다.”

정희석 성도가 예수제자학교에서 훈련 받은 7개월 동안 몸소 체험한 사랑, 가슴 벅참, 기

쁨, 소명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른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희석 성도 부부의 신앙성장과 성숙에 지

대한 영향을 준 예수제자학교는 1999년부터 시작됐다.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평신도 제자양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성도 7,326명이 수료했다.

온누리교회 양육의 꽃

예수제자학교는 매년 봄에 개강해서 9월까지 약 22주 동안 이어진다.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표 참고).

예수제자학교에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의와 나눔, 아웃리치와 성령사역, 예배와 치유,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고 체험한다. 정희석 성도 부부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났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예수제자학교는 온누리교회 양육의 꽃”이라며 “훈련기간이 긴만큼 많은 회복과 성장,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과정”이라고 소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캠퍼스	구분	일정 및 시간	장소	문의
서빙고	주간반	2월 27일~9월 13일 화,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	박성하 팀장 010-6425-9912
	저녁반	3월 10일~9월 13일 목 19시 20분, 토 14시 30분	서빙고 시온홀	심천보 팀장 010-8838-7303
양재	주간반	2월 27일~9월 13일 화, 목 10시	양재 운운홀	이기선 팀장 010-3827-5737
	저녁반	3월 3일~9월 8일 목 19시 30분, 토 14시 30분	양재 운운홀	오범규 팀장 010-5358-1124
부천	주간반	3월 2일~9월 14일 목,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홀	이정옥 팀장 010-5040-3368
수원	저녁반	3월 3일~9월 15일 목 19시 30분, 토 14시 30분	4층 비전홀	류택용 팀장 010-8968-0205
인천	저녁반	3월 10일~9월 15일 목 19시 30분, 토 14시 30분	프리스페이스 3층	김광겸 팀장 010-2006-1190
본부				신용애 사역자 02-3215-3625
				김경아 간사 02-3215-3533

목회칼럼



김도균 목사
(JDS 양재 저녁반 담당)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s School)를 담당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자 은혜이다. 교역자로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좋은 강의와 간사님들의 헌신적인 섬김, 학생들의 성실함을 통해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예수제자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교제와 헌신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예수제자학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학교’이다. 훈련을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다짐하며 졸업한 학생들이 이듬해에 간사로 지원해서 섬긴다. 학생으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간사로서 또다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제자학교는 긴 훈련기간으로 인해 놓치지 않은 과정이다. 다른 과정 같으면 수료와 동

시에 도망치듯 달아날 것 같은데 예수제자학교 수료생들은 간사가 되어 또 다시 섬기겠다고 찾아온다. 본인의 삶이 예수제자학교 훈련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말이다.

예수제자학교 은혜의 비밀은 학교 이름 그 자체에 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이다.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만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르심 앞에 배와 세리의 자리를 버리는 등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따라나섰다. 부르심은 시작일 뿐이다. 군에 입대했다고 모두가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군인은 정해진 훈련을 끝까지 통과했을 때 비로소만 들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발 앞에서 배우고, 훈련되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한다.

영적 시야가 달라진다

예수제자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초신자부터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까지 그 폭이 참 넓고 다양하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 갈급해하는 사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일터와 사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 등이 찾아온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가지고 산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 앞에 버티고 서 있다. 그러나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전에는 문제만을 목상했다면 훈련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목상하는 삶을 살아간다. 영적 시야가 달라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자 감사이다.

2018년 온누리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이다. 이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말한다. 비단 올해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야 할 삶이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다. 모든 것을 얻는 삶이다.

한국 교회가 성장의 축복 속에 한 가지 놓쳐버린 것이 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정착이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사역과 봉사에 투입돼 참된 신앙인으로 누려야 할 은혜의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다 지쳐버리고 만다.

보이지 않는 기초에 투자하기보다 보이는 집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런 욕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예배도, 기도도, 열매도, 그 어떤 열심도 의미가 없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파송되는 예수제자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두 팔 벌려 초대한다.

특집
주차사역팀의 헌신

“그들을 작은예수라고 부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이다. 그들의 주일은 참으로 고되다. 얼마나 고됐으면 허리 통증은 기본이고, 피로가 누적되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것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끔찍한 일들이 있다.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사죄도 해야 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사역팀원들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작은예수라고 부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주일(7일)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주차사역팀원들.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교회 봉사 중에서 가장 고된 일이 무엇일까? 단언컨대 주차 봉사일 것이다. 주차사역팀원들 스스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되다. 절대 엄살이 아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018년의 첫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1월 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 102호실에서 주차사역팀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날도 주차사역팀원들은 새벽 5시 30분부터 나와 주차안내를 했다. 주차사역팀은 2부예배가 시작되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예배에서 공급받는 말씀과 서로를 향한 격려가 고된 사역을 버티는 원동력이다.

역시 가장 혼잡한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20분경이다. 2부 예배 출차와 3부 예배 입차가 맞물리면 교회 앞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뽕뽕! 뽕뽕! 뽕뽕! 뽕뽕!”

여기저기서 자동차 경적소리가 귀를 따갑게 때린다. 교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꼭 막힌 도로를 보고 기분이 상했는지 경적을 눌러댔다. 그 모습을 본 한 어르신은 호통을 쳤다.

“시끄러워! 그만 좀 놀러!”

이 시간에는 차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손을 잡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어린이가 인파와 부딪혀 뒤로 자빠졌다.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넘어진 아이는 아픈 것보다 놀란 마음이 더 컸던지 아빠 품에 안겨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사람과 자동차, 버스가 뒤죽박죽 섞일수록 주차사역팀원들의 손짓이 커지고 격해졌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깜박이자 “다음 신호에 건너 주세요”라고 외쳐보지만 막무가내로 뛰어가는 성도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서빙고 주차사역팀은 총 49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이들은 서른 명이 채 안 된다. 생각해보자. 서른 명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횡단보도, 동작대교, 강북삼거리 교차로, 그 밖의 교회 주변 일대의 교통질

서를 책임지고 있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만 봉사자 8~9명을 배치해야 하니 그 인원을 제외하면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고생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주차봉사 한 번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은 몇 년 이상씩 봉사하시는 분들 이세요. 보석 같은 분들이지요.”

역설적이게도 힘든 봉사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다. 4년째 주차봉사를 하고 있는 김준 성도부터 30년째 봉사하고 있는 홍범식 장로에 이르기까지 경력이 천차만별이다. 주차사역팀원들의 평균 봉사 기간은 무려 11년이다. 그야말로 정예멤버들이다. ‘고된 봉사’와 ‘모자란 일손’이 동료를 더욱 뜨겁게 만든 덕분이다.

애환과 눈물 그리고 아픔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차사역팀의 애환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오해와 사소한 다툼, 교통사고까지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박정민

주차사역팀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

“안녕하세요”(인사만 해줘도 감사)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도할게요”
말없이 안아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꼭 손을 잡고 건너 주세요”
“주차도 예배입니다. 질서를 지켜 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으니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요.”

서원식 성도(주차봉사 6년)는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도들을 통제해야 할 때가 너무 힘들고 죄송하다고 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통제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일은 팀원들이 아플 때다. 홍범식 장로는 “팀원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이 든다”면서 얼마 전 있었던 주차봉사팀원 홍행국 집사가 교통사고 당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홍 집사는 주차봉사 도중 차에 치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차팀원들과 홍 집사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상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병원에 입원한 홍 집사님을 문병하러 갔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고까지 당했는데도 주차봉사를 계속해야겠냐고 물었더니 홍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섬겨야지’”

욕을 먹어도, 몸이 힘들어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주차사역팀원들은 경광봉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 아름다운 작은예수들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명석 성도(주차봉사 15년)가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탁이 있다고 했다.

“주차위원들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안내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부 성도님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빙고 온누리교회 우선주차증 변경

서빙고 온누리교회 우선주차증이 변경된다. 대상자들은 기존 우선주차증 대신 새로운 우선주차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우선주차증은 지정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 우선주차할 수 있는 증이다. 장애인, 노약자, 다자녀, 36개월 미만 유아동반, 임산부 차량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입차 우선순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장애인(장애인증 소지), 노약자(70세 이상), 다자녀(3명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동반, 임산부(임산부증 소지) 순으로 입차가 가능하다. 대상자가 동승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우선주차증이 붙어 있어도 우선주차가 불가하다.

우선주차증 변경 및 신청: 1월 21일(주일)부터
문의: 목회행정실 02-3215-3266

주일 셔틀버스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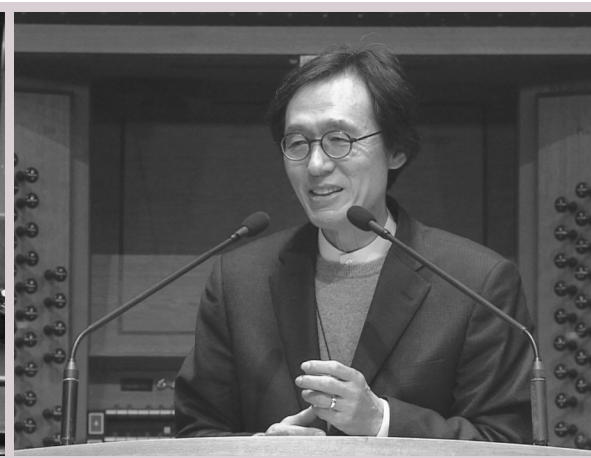
이촌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0m 떨어진 곳에 셔틀버스 정류장

운행시간

<이촌역 출발>	<교회출발>
08:20 ~ 09:10	08:10 ~ 09:00
10:30 ~ 11:30	10:20 ~ 11:20
13:10 ~ 14:10	13:00 ~ 14:00
15:30 ~ 16:10	15:20 ~ 16:00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1월 6일 Sat 토요일

영적 예배자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롬 12:1~2

이재훈 목사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공격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이유와 동기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삶입니다. 착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완전히 죽었으므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예배’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영적인 차원만의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영적인 죄입니까? 탐욕을 따르면 몸에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죄는 몸을 통해 행해집니다. 영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놀라운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고난을 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몸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나타납니다. 몸으로 사는 삶 자체가 영적입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표현입니다. 영적 예배자로 그리

스도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다른 열매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력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산 자로 그리스도를 높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별의 축복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연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이 되도록 몸을 드리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1월 8일 Mon 월요일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1~2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변화되어 집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히 12:2). 약속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고 발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둘러싼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완성됩니다. ‘바라본다’는 단어는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떼다’는 뜻과 ‘한 대상에게만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눈을 떼야 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몸을 무겁게 하고 달릴 수 없듯이 우리의 눈과 시선을 분산되게 하는 모든 죄에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히 12:1). 그리스도보다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물건(사물)을 보지만 정신은 가치를 봅니다. 영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정신은 보았던 것을 상상함으로 초자연의 영역을 경험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이 세상의 헛

된 죄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눈을 떼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능력한 것은 참된 상상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참된 상상력입니다. 예수님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9일 Tue 화요일

지극히 작은 자를 주께 대하듯

마 25:31~46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노숙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저는 냄새 맡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혐오스러운 느낌도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 대하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요일 2: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과 세상 그 자체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제야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5절에 나오는 삶의 자리

가 어디입니까? 최후심판의 자리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증거로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마 24:3~14). 이 말씀 속 상황은 이 시대의 현실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진실한 사랑과 존귀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법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왜 사

랑이 식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막 12:30~31). 예수께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에 도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막힌 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0일 Wed 수요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골 3:22~4:1

이상준 목사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너의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직장에서 상사에게, 학교에서 선생님께,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주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땅한 존중과 헌신, 충성과 순종을 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뒤에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께서 24시간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가림으로만 하는 충성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충성인지를 돌아켜봐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한 단어로 줄이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은 무엇인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은 시간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것이 진심입니다.

사람이 내게 부당한 명령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목숨을 걸어야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순종과 섬김을 생각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개념의 순종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순간 진심과 전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할 때 해치우는 식으로 하고 관계도

대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할 때도 그러저럭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인생의 속도라면 진심은 순도이고 전심은 농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효율성으로 살면 안 되고 진정성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마리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정말 매순간 단 한사람을 대하셔도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돌아켜야 합니다.

하나님 대하듯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그 상급을 상대방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편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월 11일 Thu 목요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롬 14:4~10

이기원 목사

로마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는데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와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1~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로마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활

윤리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먼저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수용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고 없이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보호자가

돼서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윤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수용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 지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를 위해 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나 죽으나, 병에 걸리나 걸리지 않으나, 사업의 성공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2일 Fri 금요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라

고후 5:14~15

정민영 선교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생소한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뜻이 온전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

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적 근원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

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굳이 종교를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을 이해했다면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신다면 죽음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세주의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행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분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상호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희생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주님이 작은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특권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

당신을 위한 ‘건강한 영성 체크리스트’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성을 진단하고 체크해야 한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기훈 목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나는 오랫동안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도 발견했다. 그때마다 그 원인이 궁금했고,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통해 내게 그 해답을 알려주셨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말씀 묵상을 수십 년 동안 해도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 예배생활, 말씀묵상, 제자훈련 과정이 온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10가지 증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10가지 증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자기만족을 위해서 한다. 겉보기에는 헌신한 것 같고, 정말로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성취를 위해서 일 하는지를 말이다.

둘째, 분노, 슬픔, 두려움, 염려 등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숨겨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을 주셨다.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걱정하는 등의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다보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난 뒤에 죄책감을 가진다. ‘내가 미쳤어’, ‘왜 화를 냈을까’ 후회를 한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면 엉뚱한 곳에서 표출된다. 한때 황혼이혼이 유행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황혼이



혼은 꼭 참고 살아온 부인이 자녀가 성인이 된 것과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다보면 부정적인 방법,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을 무시하고 숨겨두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셋째,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여행 등과 같은 욕구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아웃리치 일정에 관광과 쇼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쇼핑하러 왔어?”라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선교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야 한다. 그 나라와 민족을 알려면 쇼핑을 해야 한다. 시장에 가서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찾을 수도 있다. 좋은 영화, 좋은 연주회에 가서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의 한 구석을 되짚어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넷째,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영향을 부정하거나 덮어두고 산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모습의 발현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은 언젠가는 표출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고집어내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명성과 부끄러움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두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다섯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잘못된 구분을 해놓고 산다. 그러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교회 밖에서 섬기는 일이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다.

여섯째, 사람과의 갈등을 무조건 회피한다. 사람들은 서로 갈등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갈등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갈등을 덮어두고 산다. 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대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엄마는 나의 고민에 대해 이해해 본 적 있어?”라고 묻는 사춘기 자녀에게 “네가 배가 불렀구나. 엄마는 더 어렵게 컸어”라고 말하면서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것은 건강한 대화 방법이나 건강하게 갈등을 푸는 방법이 아니다. 갈등과 직면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일곱째, 자신의 약점, 상처, 실패 등을 철저히 숨긴다.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한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존감은 건강한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할 줄 안다. 자존심은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견디지 못한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내면에 자유함이 있고, 자존심만 센 사람은 내면에 억압이 있다. 자존감이 강한지 아니면 자존심이 강한지를 돌아켜 봐야 한다.

여덟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신이 전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리고 만다.

아홉째,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

다. 부정적인 표현 일색이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긍정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 별거 아니네”, “예수님 잘 생긴 줄 알았는데 별로잖아” 등 불평불만만 이야기할 것이다.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 잘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격려와 칭찬,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한테 야단만 맞고, 비난만 받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나쁜 말만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사랑의 관계 =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열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하느라 바쁘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교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관계로만 교회생활을 한다. 인격적 관계란 사랑의 관계이다. 기능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두 가지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생활을 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동했고,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냈는지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왕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악함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살진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삼상 15:122).

사랑의 관계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다. 사울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랑의 관계는 상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준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율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믿음생활을 뜻한다. 사랑의 관계가 없는 믿음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이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의무만 있는 기능적 관계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018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진은 일산공동체 마태다락방 1다락방 1사역.

사회선교부, ‘1다락방 1사역’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미자립교회 지원 많고, 인원 동원, 동기부여 어려움

사회선교부에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다락방장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다락방 1사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17년 1다락방 1사역 현황, 어려운 점, 2018년 계획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이주민 사역과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이 가장 많았고, 인원 동원 및 동기부여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다락방

1사역 대상은 이주민(45개)이 가장 많았고, 미자립교회(22개), 탈북자(19개), 장애인(14개)이 뒤를 이었다. 1다락방 1사역의 어려움은 인원 동원(73개)이 가장 많았고, 동기부여(62개), 재정문제(35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 사역 변경 및 검토 대상은 이주민(18개), 독거노인(6개), 미자립교회(5개) 등이었다.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다락방은 21개였다. 다락방장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은 모범사

례 공유, 컨설팅 및 후방지원, 공동체 사회선교 사모펀드 운영 등이었다.

이기훈 목사는 “1다락방 1사역은 이웃들과 관계 맺고, 신뢰 쌓고, 나누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계 맺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관과 교회보다 한 개인과 한 가정을 더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3월 10일 개강

부부코칭 프로그램

가정사역본부 소속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이 3월 10일 개강한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친밀한 부부관계를 꿈꾸는 모든 부부들을 위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40~50대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성경적 원리로 부부코칭을 해주는 과정이다. 부부관계 점검 및 진단, 이상적인 가정관, 수련회, 배우자 바로 알기, 성경적 가정의 모습 등에 대해 배운다.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한편 2월 10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는 ‘원데이 부부특강’이 개최된다.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 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이 강의한다.

박성덕 소장은 교육방송 EBS에서 방영된 ‘부부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책임 전문가로 출연했었다. 우리나라에 ‘정서중심적 부부치료’를 처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파일럿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거워 조가마감됐다.

문의: 010-9041-5538

/ 정현주 기자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 원’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다!”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2018년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시작됐다. 포문은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 원’이 열렸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된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 원’에는 청년부 리더십 1천 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 홍성호 장로, 한정국 선교사, 김승수 목사, 조준목 목사가 부르심, 영성, 소통, 선교, 성령, 헌신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예랑(SNS공동체) 형제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는 자리였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Like Jesus’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교원비전센터에서 진행된다. 개인, 세상, 문화, 거룩, 성령, 캠퍼스를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 김승주 목사, 최성민 목사, 최유강 대표가 강의한다.

/ 김영선 기자

상담실 수련상담사 모집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1월 31일까지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이다. 비용은 한 학기 15만원이며 총 2학기 진행된다. 매주 슈퍼비전과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793-2998

‘샬롬 예루살렘 공연’

KIBI 단원모집

KIBI에서 ‘샬롬 예루살렘 공연’ 단원을 모집한다. 공연기획자, 테너, 바리톤, 메조소프라노, 대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어린이 찬양단(7~11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가 대상이다. 2018년 샬롬 예루살렘 대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792-7075

두란노해외선교회

FA 14기 모집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14기 FA 주인공을 찾고 있다. FA 14기는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약 6개월 동안 파송될 예정이다. 대상은 만 35세 이하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Tim.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1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010-5415-9150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3월 13~21일 이스라엘

류모세 선교사와 함께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에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루살렘, 예리고,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 가이사라 등 성경 속 드라마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니다.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성경을 공부한 다음 현장을 답사하는 아카데미 코스이다.

문의: 010-4902-1022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46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46기가 1월 20일 개강한다. 본부 146기 아버지학교는 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기치로 내걸고 실추된 아버지상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교회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 국내외기업 등지에서도 개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회비 12만 원. 문의: 010-4906-1313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오탄 간사(양재 목회지원실)

뜻밖의 손님과 케이크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당직 근무로 이른 퇴근을 하고 와이프와 장모님, 딸과 함께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유승현 전도사님이었다. 오며가며 인사드리긴 했지만 특별한 교류가 없었기에 ‘무슨 일이지?’ 의구심이 들었다. 전도사님은 드론을 구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조연을 구해도 되냐고 물으셨다. 그렇게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런데 간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라고 물으셨다. 장 보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자 짧은 탄식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마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에는 윤길중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사역관련 이야기 등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통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 목사님이 물으셨다.

“탄 간사님, 지금 퇴근했죠? 어디 계세요?”

이쯤이면 이상함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해맑게 대답했다.

“와이프랑 민하(딸)랑 장모님하고 같이 장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이 지났다. 또다시 윤길중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고구마

두 박스가 있는데 근처를 지나다가 주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의심이 많아서 잘 속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그 말 그대로 믿었다. ‘이 근처에 심방이나 장례식에 왔다가 들리셨나보다’고 생각했다.

잠시 뒤 벨이 울려 문을 열어드렸더니 아빨싸, 아까 드론을 사시겠다던 유승현 전도사님과 고구마를 주시겠다던 윤길중 목사님이 케이크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셨다. 정말 깜짝 놀랐다. 알고 봤더니 양재 은누리교회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간사들의 집을 방문해서 축복해주고 계셨다. 두 분은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케컬도 부르고, 케이크 썰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셨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또 다음 장소로 가야 한다고 하셔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선물해주신 케이크를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감동과 여운이 남아서 한참을 먹지 못하고 쳐다만 보았다. 감사함과 민망함이 뒤섞인 채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밤이었다. 양재 은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크나큰 사랑을 받았다.

■ 25기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신윤희 성도

전도폭발훈련 이후

영적으로 곤고해지다보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도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 그러던 내가 전도폭발훈련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있는 남편이 나의 큰언니를 전도했다. 그 자리에서 언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다.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큰언니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전도폭발훈련을 신청했다.

나는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삶속에서 천국(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다.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링거를 맞기 위해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누워 있는 환자들은 훌륭한 전도대상자였다. 전도폭발훈련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몇 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덕분에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가족전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작은형부와

작은언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셨다. 작은형부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분이다. 나는 형부의 생일날 긴장된 마음으로 형부에게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교회가기를 거부하던 작은언니도 예수님을 만났다. 목사님께서 외우라고 한 것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언니와 형부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오히려 내가 당황했고,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었다. 가족 구원의 기쁨과 은혜는 계속 이어졌다. 세 아이를 키우며 마음 고생하는 막내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기 전에는 근심이 많았다. 전도는 마음뿐이었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다. 복음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난 적도 있다. 교회에서 상처 받고 떠난 분에게는 대신 사과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전도폭발훈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대학청년부 사랑애틀 나눔 간증



/ 홍지혜 자매(요셉공동체)

문 앞에 서서

중랑구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애틀 나눔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바랐던 것은 한 가지였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것이다. 선행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복지재단이나 여타 종교 단체에서도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봉사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생명을 전하는 걸음이 되어야 했다.

청년 3명이 한 조가 되어 다섯 가정씩을 방문했다. 집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골목이 정말 많았고, 그 골목마다 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골목길을 헤매며 많은 집들을 두리번거리면서 문득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실 것만 같았다.

우리가 방문한 가정은 모두 1인 가구다. 어르신 혼자 생활하고 계셨다. 청년들이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우리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다.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도 골목길까지 나와 우두커니 서 계신 할머니도 계셨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더니 너무 차가웠다.

할머니는 방금 나왔다고 하셨지만 오래 서 계셨던 것이 틀림없었다. 냉장고를 뒤적여 요구르트를 내 주신 할아버지도 계셨고, “너무 고맙다”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신 어르신도 계셨다. 또 보일러를 틀고 있지 않다가 우리 때문에 뒤늦게 보일러를 가동하신 어르신도 계셨다. 어떤 어르신은 청년들이 고생한다며 점심밥을 주시려고 하셨다. 헤어질 때는 집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주셨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매일을 알지 못한다. 인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많은 사연들도 알지 못한다. 다만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이분들을 만나 주세요. 어르신들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나 이른 새벽에도 마음이 춥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에게 꼭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사랑애틀 나눔 행사는 한 나절 만에 끝났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문밖에서 한 영혼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 군선교팀과 사랑챔버의 연합집회 간증



/ 이진희 성도(사랑챔버)

낮은 곳에 큰 사랑으로

나는 사랑챔버에서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는 정범준의 엄마 이진희다. 범준이가 사랑챔버에서 연주한 지 벌써 7년째 되었다. 그동안 사랑챔버는 여러 곳에 연주를 다녔지만 군부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청와대 경비단교회에서 연주를 한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연주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는 단원을 제외하고 청와대에 처음 가는 나이가 어린 단원들로 연주팀을 꾸려서 열심히 연습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청와대 경비단은 청와대와 거리가 제법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연주를 준비하면서 군선교팀으로부터 경비단교회가 지난 9년 동안 거의 닫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다 지난 가을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 이후 장병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들은 경비단교회가 다시 장병들의 찬송으로 가득차기를 기도하면서 연주준비를 했다.

군선교팀에서 하나하나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사랑챔버가 따로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경비단교회에 도착했더니 미

리 오신 군선교팀에서 장병들을 위해 팝콘을 손수 튀기고 계셨다. 그뿐만 아니라 장병들과 우리들을 위해 햄버거와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 처음에는 아이돌 가수도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장병들이 마음을 열어줄지 걱정 되었다. 하지만 사랑챔버의 연주가 시작되자 장병들이 집중해서 듣고 큰 박수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마음에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캐럴을 연주할 때는 걸쭉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낮은 곳에 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군대에 와서 힘들고 낙심했을 때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도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시기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군선교팀에서 사랑챔버를 1월 1일 새해맞이 독도함 행사에도 초대해 주셨다. 올해는 군선교팀과 함께 협력해서 더 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세상이 믿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을 만듭니다. 만약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앞의 세 가지 하나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열심히 조직을 만들면 세상의 하나됨이 됩니다. 세상의 하나됨은 생명이 없는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믿게 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까지는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됨부터는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연합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만약 우리

가 네 번째 하나됨까지 이룬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곰곰이 읽어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앞서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됨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념적 하나됨과 조직적인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아도 네 가지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면 세상이 믿고, 알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바라봐야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멋진 건물을 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

십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품으려고 하면 세상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역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됨을 이루면 세상이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도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올 한해는 더욱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결코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장로칼럼



주수일 장로
(사역장로회장)

온누리교회는 지난 32년 간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선구적인 교회로 잘 성장을 해왔다. 이런 교회의 성장은 이전에 임지했던 140명의 사역장로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역장로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Acts 29 사역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장로들의 호칭부터 사역장로로 개칭을 하고 항존직으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역장로회가 조직되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시무장로 283명, 사역장로 140명으로 총 장로 수가 423명이 된다. 앞으로 도 장로들이 계속 은퇴를 하고 새로운 장로가 장립되면 곧 300명이 넘게 될 것이고, 모든 장로들은 결국 사역장로회에 들어와 나머지 평생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사역장로들은 교회 안의 시무직에서는 일단 2선으로 물러난 입장이다. 그래서 교회 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 행정 시무직과 겹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조금 더 보람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개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해외선교,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대외협력사역, 가정사역 등 다른 교회들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많이 해왔다. 우리 사역장로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사역들을 계속 개발 및 확산해 나가는 것에 함께 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말씀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7명의 안수집사를 택했다. 교회의

사역장로회의 나아갈 길

치리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방 세계로 나가는 말씀사역에 전념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고, 갈렙은 85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사역장로들이 이를 본받으면 좋을 것 같다.

온누리교회 사역장로들은 젊어서부터 교회 사역에 헌신해 왔고, 잘 해왔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사역의 질을 더 높이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역장로사관학교(가칭) 같은 새로운 조직을 개설해 사역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전역해 사역장로가 된 이들은 대부분 7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다. 이들이 사역장로회에 들어오면 사역장로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들이 선배 사역장로들과 같이 협력해 이 일

에 참여하고, 교회 외곽에서 교회의 일을 도우면 사역장로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사역장로회 임원

회장:	주수일
부회장:	김성순, 최희영
총무:	백승웅
부총무:	송일섭
서기:	서진봉
부서기:	홍종철
회계:	최명
감사:	김종성
일대일사역 위원장:	이한열
큐티사역 위원장:	임광택
가정사역 위원장:	김선래
협력사역 위원장:	강찬석
내부친목 위원장:	정병균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도 하라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인도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병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스페인어 기도모임

인도: Ps. Cristian Neira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B102호

문의: 010-4924-2703 *통역 지원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1월 20일~2월 24일(매주 토 오후 5시)

접수: 02-2182-9151 / www.father.or.kr

문의: 김상수(010-4906-1313)

*아이스쿨에서 등록가능

꿈아이놀이터(꿈터) 30기 모집

대상: 22~38개월

기간: 3월 21일~5월 23일

시간: 수요일 오전 10:40~오후 12:40

신청: 3월 11일까지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터 교사 모집

분야: 음향, 세팅, 한양, 데코, 반주,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길혜영 전도사(010-3174-8107)

꿈땅 사이닝키즈 모집(말씀암송학교)

대상:초등학교 1~6학년 (2018년도 기준)과

부모님 중 한 명

내용: 마태복음 5,6,7장 암송

신청: 1월 26일(금)까지

개강: 3월 10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문의: 송동진 코치(010-4717-679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2018년 1월 14일 선교헌금 작성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선교 재능기부 접수

1. 현장 접수 (2018년 1월 14일) :
온누리교회 서빙고 1층 로비 / 양재 사랑홀 로비 /
각 캠퍼스
2. 온라인 접수 (연중 접수 가능) :
재능기부 QR코드 참조 / <https://goo.gl/scn5hX>



※ QR코드와 짧은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선교재능기부 문의 070)4949-7886

선교헌금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 ①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③ 기존 가입하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2. 현금봉투 방식 :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